

자가번역(self-translation) 비평

— 안정효의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

전 현 주

(한북대)

1. 들어가는 말

문화의 전이에 수반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행위 중 하나인 번역은 원전의 작가와 번역본의 역자는 대체로 동일인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때문에 번역평가 및 비평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작가와 역자가 동일인물이 아닌 번역작품을 대상으로 역자가 역본에서 저자의 의도 및 원작의 작품성을 구현한 정도 및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어의 세계화와 탈경계·탈국가·탈민족 등 인적교류 및 이동성의 확산으로 이산(diaspora)과 혼종(hybrid) 등 다문화적인 삶의 양상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글쓰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최소한 두개 이상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2개 국어 병용자’(bilingualist)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2개 국어 글쓰기’ 혹은 ‘이중어

글쓰기'(bilingual writing)를 병행하는 작가들도 있다. 이중어 글쓰기가 보편화 되면 자신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는 작가 겸 역자의 활동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자가번역'의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향후에 작가 겸 역자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자가번역'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번역평가 및 비평의 과정도 후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개 국어를 병용하는 작가 겸 역자의 '자가번역' 작품을 저자와 역자가 상이한 '타자번역' 작품과 동일선상에서 일반적인 번역의 비평 및 평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타자번역'과 달리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번역하는 '자가번역'에서는 일반적인 번역비평 및 평가에서 논의되는 역자의 번역전략, 배경지식, 원작에 대한 충실성, 작가의 의도, 역자의 자율성, 가독성 등의 구현 방식, 저자와 역자의 역할 및 원작과 번역본의 경계 등이 '타자번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 및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국내외에서 2개 국어 병용 작가로 선도적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안정효의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의 원전 및 역본을 분석대상 작품으로 삼았다. 이 작품을 분석대상 도서로 선정한 이유는 영문판 *Silver Stallion*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삶의 단면을 '영어로 쓴 한국문학작품'¹⁾이기 때문에 원전과 역본을 소화하는 두 문화권은 이질성과 동질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 상정하며, 작가 겸 역자의 서술 및 번역 관점이 여기서 출발했을 것이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가번역'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 및 번역전략과 비교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번역에서 신성불가침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원작에 대한 충실성, 저자의 의도 반영, 역자의 번역 자율권 제한 등에 관하여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그리고 '자가번역'의 현상을 이중어 글쓰기와 접목하여 번역학 연구 및 관심의 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1) 영어판의 원제는 *Silver Stallion: a Novel of Korea*이다.

2. 자가번역

2.1 자가번역의 정의

‘자가번역’(自家翻譯)(self-translation 혹은 auto-translation)²⁾이란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 혹은 그 작업의 결과물을 말한다.(Grutman 17) 이와 대조적으로 ‘작가와 역자가 서로 다른 행위 및 그 작업의 결과물’을 본 논문에서는 ‘타자번역’(other-translation)이라 칭하기로 한다. 번역학 이론이나 사전에 ‘타자번역’이란 술어를 별도로 등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자와 역자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번역’은 ‘자가번역’에 비하여 변별성과 유표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변별성과 유표성을 지닌 ‘자가번역’은 무엇보다도 원작의 저자가 해당 작품을 번역하는 역자를 겸하므로 희소성³⁾을 지닌다. 왜냐하면 저자 자신이 이중언어 사용자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자가번

2) 번역학의 ‘자가번역’ 관련 술어로는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의 초판과 『번역학사전』(*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초판 및 재판에 ‘auto-translation’과 ‘self-translation’이 등재되어 있다. ‘auto-translation’ 항목에 술어의 정의 및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며, ‘self-translation’ 항목에는 ‘auto-translation’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다. 표제어를 알파벳순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auto-translation’이 ‘self-translation’보다 앞에 등재되어 술어 사용의 가치가 부여될 수도 있는데, 술어 사용과 관련하여 필자는 ‘auto-translation’보다 ‘self-translation’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접두어 ‘auto’는 ‘self’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自動)의 의미를 연상하여 ‘기계번역’(machine-translation)과 혼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술어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2009년에 출간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의 재판에는 표제어 ‘auto-translation’은 삭제되고 ‘self-translation’만 다룬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전의 편집자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사항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자가번역’의 영어 술어로 ‘self-translation’를 사용하기로 한다.

3)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제공하는 1990년대 이후 출간연도별 번역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33편(출간00년대 769권, 1990년대 495권, 1980년 287권, 1970년대 150권, 1960년대 65권, 1950년대 54권, 1940년대 6권, 1930년대 5권, 1920년대 2권 등) 중에서 ‘자가번역’ 작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 이 자료는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및 기타 개별 기관의 번역지원현황을 모두 합친 통계치이다.
(http://www.klti.or.kr/infor/01_status10.jsp?year=200)

역' 작품을 생산하는 확률이나 빈도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이중 언어 사용자라 하더라도 작품을 저술하지 않거나, 단일어 혹은 이중어로 작품을 저술하더라도 해당 작품에 대한 번역작업을 병행하지 않거나, 이중어로 저술 혹은 번역을 하지만 타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번역작업을 하면 '자가번역' 작품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가번역' 및 '타자번역'의 관련성을 작가와 집필방식 및 언어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단일어 및 이중어 사용 작가의 집필 방식 및 언어의 관계

작가 집필방식	집필언어	창작언어		번역언어		
		단일어 (한국어)	이중어 (한국어, 영어)	일방향 (영어⇒한국어, 한국어⇒영어)	쌍방향 (한국어 ⇔ 영어)	
					작가≠역자	작가=역자
단일어 사용자	창작	○				
	번역	해당사항 없음				
이중어 사용자	창작	○	○			
	번역			○('타자번역')	○('타자번역')	○('자가번역')

읽어두기 : 1. 위의 표는 편의상 한국어와 영어의 두 언어만 대입하였음.
(타언어 및 3개 이상 언어사용자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음).

역사적으로 '작가인 동시에 타인의 작품을 번역한 역자'⁴⁾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창작과 번역작업을 병행하지만 자신이 아닌 타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번역하는 '타자번역'을 행한다. 이와 달리 자신의 창작

4) 서양의 경우 알렉상드르 뒤마(세익스피어의 『햄릿』과 『아이반호』 번역), 루소(타키투스의 작품 일부 번역), 디드로(샤프츠베리의 작품 번역), 볼테르(새뮤얼 버틀러의 시 번역), 알프레드 드 비니(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번역), 보들레르(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 『고든 핼 이야기』, 『유리카』 번역), 제라드 드 네르발(괴테의 『파우스트』와 하이네의 시집, 실러, 클로프슈투크, 뷔르거의 작품 번역), 프루스트(러스킨의 『참깨와 백합』, 『아이앵의 성서』 번역), 지오노(멜빌의 『백경』 번역), 모루아(스턴의 『트리스트람 샌디』 번역), 카뮈(베가의 『올메도의 기사』 번역) 등이 있다(이 회재 165-7).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윤기(『장미의 이름』, 『그리스인 조르바』, 『천국의 열쇠』, 『푸코의 진자』, 『종교의 기원』 등 번역)와 안정효(『백 년 동안의 고독』, 『그리스인 조르바』, 『더 컬러 피플』, 『뿌리』, 『권력』 등 번역)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작품을 직접 자신이 번역하는 ‘자가번역’ 작가는 ‘타자번역’ 작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의 작가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타자번역’ 작가로는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와 안정효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안정효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타자의 작품을 번역하는 동시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스스로 번역하는 ‘자가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내에서 출간된 자신의 작품 『하얀전쟁』과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⁵⁾를 각각 *White Badge*(1989)와 *Silver Stallion*(1990)의 제목으로 미국의 유명 출판사 Soho Press에서 출간한 바 있다. 이 두 편의 작품 외에도 *And Be Quiet at Last*(그리고는 침묵이), *The Hillburners*(화전), *Connivance*(묵인), *By the Sunny Window*(양지쪽 창가에서), *The Den of Thieves*(도적의 소굴) 등(안정효 2000a: 12)을 이중어로 집필하였다. 이들 작품은 향후 *White Badge*와 *Silver Stallion*과 마찬가지로 ‘자가번역’ 작품이 미국 현지에서 출간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2.2 원전과 번역본

본고의 분석대상 도서와 관련하여 우선 원전과 번역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안정효는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를 영어로 집필했을 때 처음에는 제목을 『밤나무집』으로 정하여 첫 원고를 1964년 7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1966년 6월에 다섯 번째로 원고를 고쳐 쓰는 작업을 하였다.(안정효 1990: 322) 1968년 2월까지 여섯 번째, 같은 해 11월에 일곱 번째로 원고를 고쳐 쓰는 작업을 했으며(안정효 1990: 323), 1986년에 『갈쌈』이란 제목으로 출판사 ‘책세상’에서 우리말 도서를 출간한 후, 같은 해에 다시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로 서명을 바꾸어 고려원에서 출간하였다.(안정효 1997: 약력; 2000a: 24) 그 후 다시 1988년에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를 영어로 개작하는 과정을 거친 후

5) 이 작품은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어로 쓴 한국문학작품이다. 영문판과 한글판 외에 장길수 감독이 1991년에 영화로 제작하여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출연배우는 이해숙(언레), 양택조(마을이장), 전무송(훈장), 김보연(용녀), 방은희(순덕), 손창민(석구) 등이 있으며,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1992년 덴마크어 판이 Ulla Warren의 번역으로 *Generalens genkomst*의 제목으로 Husets Forlag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안정효 약력 참고)

1990년 미국의 Soho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안정효 1990: 324) 처음에 안정효는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먼저 작품을 집필한 후 대학 2학년이었던 1962년부터 미국의 여러 출판사로 원고를 보내며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면서(안정효 2000a: 61), 지속적으로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영어로 쓴 원고는 여러 차례 고쳐쓰기를 거듭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연도 및 해당 월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 및 전후 상황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의 ‘작가후기’와 ‘작가소개’에 언급된 우리말 판본의 집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5년경에 이 작품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장편소설을 선호하지 않는 우리나라 출판계의 사정 때문에 5백매 정도의 중편으로 고쳐 썼다. …… 장편 형태의 영문 원고를 바탕으로 1986년 여름에 한 달 동안 마지막 정리를 하여 『갈쌈』이란 제목으로 일단 발표를 하였다.”(안정효 1990: 323-4) 결국 독자들에게 공개된 출판시기 측면에서는 우리말 작품이 국내에서 1986년에 먼저 출판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90년에 미국에서 영어판이 출간되었지만, 우리말 원고는 ‘장편 형태의 영문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출간했다’는 대목을 기준으로 보면 영문판이 원전이며 우리말 판본이 번역본에 해당한다.

또한 「뉴욕타임즈」 1990년 2월 21일 자의 ‘Korean’s Novel Is Anti-War But Not Anti-American’에는 “*Silver Stallion A Novel of Korea By Ahn Junghyo Translated by the author*”⁶⁾에서 작가가 직접 번역했다(translated by the author)는 대목과 미국에서 두 번째로 출판되는 한국어를 영어로 작가가 직접 번역한 작품(*Silver Stallion is the second novel published here by Mr. Ahn (who translates his own work from the Korean into slangy English)*…)이라는 대목을 보면 한국어 판본이 원전이며, 영어 판본을 역본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번역본은 일반적으로 원전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출간순서가 앞설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원칙을 ‘자가번역’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전을 출간한 후 역본을 집필하는(delayed auto-translation)⁷⁾

6) 「퍼블리셔즈 위클리」(Publishers Weekly)지 1989년 10월 6일자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다.(이는 출간당시 책의 정가와 ISBN 코드가 함께 명시된 것으로 보아 소호 출판사에서 명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으로 보인다).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가령 원전과 번역본을 동시에 집필(simultaneous auto-translation)한 경우 둘 다 모두 원전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혹은 모국어로 집필하기 전에 외국어로 먼저 집필하였으나 사정상 모국어 판본을 먼저 출간하고 외국어 판본을 나중에 출간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원전과 번역본을 나눌 것인가? 이 때 출간순서를 우선으로 삼으면 원전과 번역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출간순서 외에도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창작 작품은 자기발생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번역작품은 원자에 기초하는 파생적인 측면이 강한 태생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영어판본이 원전에 해당하며 우리말 판본이 번역본에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출간시기와 원고 창작의 우선순위에 따라 원전이 서로 달라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원전과 번역본을 구분해야 할까? 출간순서 위주로 원전을 결정하면 원전과 번역본이 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집필 과정이나 저자 겸 역자인 안정효의 설명에 기초한 원고의 창작성을 우선으로 삼아 영어 판본을 원전으로 우리말 판본을 번역본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원전과 번역본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저자 겸 역자의 자율성이 원작과 번역본에 구현된 양상을 중심으로 ‘자가번역’ 작품에 대한 비평을 다음과 같이 시도한다.

2.3 번역의 특징

우리나라의 번역비평가들은 번역텍스트의 품질을 평가할 때 원전에 대한 ‘충실성’과 ‘정확성’ 및 번역본의 ‘가독성’을 기준으로 삼는다.(전현주 2008: 140)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작품 속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번역본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가를 번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로 적용한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충실성을 점검하는 잣대로 원전의 내용 및 형식의 준수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향과 관행을 기준으로 분석대상 작품의 원전 및 번역본을 대조한 결과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원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7) ‘자가번역’에서 원전과 번역본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집필순서에 따라 ‘동시적 자가번역’(simultaneous auto-translation)과 ‘지연된 자가번역’(delayed auto-translation)으로 분류한다. (Grutman, Rainier 2001: 20)

있었다.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원전과 번역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1 형식적인 측면

2.3.1.1 표현의 생략

다음은 해당 작품의 제1부 ‘전쟁이 오는 마을’의 도입부분이다. 예문1)을 살펴보면 원문에 비하여 번역문의 분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은 번역문에서 생략된 내용이며, 원문의 세 문단이 번역문에서는 한 문단으로 줄어들었다.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①은 앞문장의 ‘late stars glimmered faintly in the dawn-tinged eastern sky’를 보충하는 ‘황노인은 별의 위치만 보아도 새벽 네 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늘 수탉이 울기 전에 눈을 뜨는데 그가 노인이라 잠이 많지 않다’는 내용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②의 ‘황노인이 빗자루를 꺼내 마당을 쓸기 시작하여 문 밖의 디딤돌 있는 곳을 쓸 때쯤’과 ③의 ‘아낙네들은 아침을 짓고 식전에 밭일을 하려고 농부들은 삼이나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집밖으로 나온다’ 역시 생략하였다. ②와 ③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황노인의 집과 마을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으로 역문에서 생략은 하되 ‘날마다 똑 같은 아침 풍경이었지만’으로 함축적인 번역을 하였다.

예문1)

ST : Old Hwang flung open the gate to usher the new day into his house. The sun had not come up yet and late stars glimmered faintly in the dawn-tinged eastern sky. ①He could tell by their positions that this was the fourth hour. He always woke up before the roosters; he was an old man and did not need much sleep.

②He took a bush-clover broom from the rice barn and started sweeping the courtyard. By the time he reached the stepping stones outside the gate, white streaks of some rose gently from the low earthen chimneys of the huts in the fields. ③The women inside were cooking the breakfast rice. Farmers trickled out of their homes one after another, each slinging a shovel or a long-handled hoe over his shoulder, to do some work before the first meal. This was the tranquil landscape the old man had watched from his gate

at this early hour on summer days all his life.

Then Old Hwang glanced over at the huge columns of dark smoke rising from the town. He frowned. High in the air above Phoenix Hill black clouds of smoke hung suspended like great chunks of frozen vapor. The air raid over the town had lasted for about two hours yesterday afternoon and the buildings near the railroad station were still burning. (3-4)

TT : 황송각 노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 새벽을 맞았다. 해는 아직 오르지 않았고, 희끄무레 벗겨지는 동녘 하늘에서는 늦별들이 머뭇거렸다. 들뜬에 두어 채씩 흩어진 초가 토담집에서는 낮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안개처럼 처마에 걸려서 날마다 보아도 똑 같은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날은 다른 데가 있었다. 강 건너 읍내 쪽으로 눈을 돌리면 시꺼먼 연기가 아직도 꾸역꾸역 봉의산보다도 높이 솟았다. 어제 낮부터 시작된 공습이 밤새도록 계속되더니 춘천 철도역 부근에서는 날이 밝아도 집들이 그냥 불타고 있는 모양이었다.(12)

2.3.1.2 문장 및 문단의 전개순서

다음은 원전의 전개순서가 역문에서 재배치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도입부의 ①의 문장과 ② 이하의 다섯 문장은 역문에 고스란히 번역되었다. 다만 역문에서 【 】 부분은 원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부분이다. 첨가된 내용은 ①과 ② 이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 운주아범의 행방이 묘연해졌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며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역시 소극적인 면을 역문에서 보다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muttering’ 이하의 분사구문을 제외한 ③의 내용만 번역되었으며, 역문에서 문단의 나열 순서가 바뀌어 뒤에 배치되었으며, ‘muttering’부터 밑줄 친 ④부분이 역문에서 생략되었다. 그리고 ⑤의 문단은 통째로 역문 ③의 뒤로 이동배치 되었다. 그리고 ⑥과 ⑦, ⑧, 그리고 ⑨ 이하의 문장들은 원문에서는 한 문단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역문에서는 ⑥이 독립적인 한 문단을 차지하고, ⑦과 ⑧, 그리고 ⑨는 한 문단으로 처리하되 ⑦과 ⑧ 사이에 ⑨를 배치하였다. ⑨가 ⑧의 앞으로 배치한 것은 인과관계를 서술할 때 원문은 결과 다음에 원인을, 역문은 원인 다음에 결과를 배치하였다. 예문2)의 문장 및

문단의 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원문: ①→②→③→④→⑤→⑥→⑦→⑧→⑨ ⇒ 역문: ①→②→④(생략)→⑥→⑦→⑨→⑧→③→⑤로 전개되어 있다.

예문2)

ST: ①The farmers of Kumsan village had never considered that the war had anything to do with them. ②As recently as yesterday morning, in fact, they had hardly believed that a war was actually going on. Some of the villagers had seen Communists guarding buildings draped with red flags when they went to town to sell radishes or straw ropes. Nobody dared to go near the People's Army soldiers armed with the strange Russian rifles, but the presence of those soldiers in town was the only visible evidence of war for the villagers, although it had been three months since this war had broken out. Some townspeople said the Communist Army had come to liberate the South and unify the divided nation; others that the Reds were nothing but bloody murderers who were determined to wipe out the southern half of the nation. Confused by these conflicting rumors the villagers listened and nodded or shook their heads half-heartedly: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③Old Hwang spat twice to ward off evil fortune in general and went back to the rice barn, ④muttering, to replace the broom. The old man was vaguely apprehensive. What was happening at the town might eventually affect his village, too, but he could not believe it.

⑤As he was drawing water at the garden well to wash himself, a sparrow twittered tentatively in the lone magnolia standing outside the earthen wall. He cleaned his teeth with salt and gargled loudly by the chest-high wall, watching the floating fog slowly raced across the rice paddies toward the river.

⑥The old man shook his head, narrowing his eyes in displeasure. ⑦If something were to go wrong with Kumsan or the other nearby villages, ⑧he would be primarily responsible because he was the county chief. ⑨A generation ago, his father had been appointed chief both by the farmers in the country and the Japanese authorities in the town, although there had never been any official election.

Nobody questioned the authority of the Hwangs, the wealthiest and most educated family in the West Country for the last eight generations. If a perplexing dispute arose among the farmers on this side of the two rivers, they naturally came to consult the Hwangs, to obtain their wisdom and hear their judgement. ……(4-5)

TT: ①②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금산리(錦山里) 사람들에게는 전쟁이란 조금도 실감 나지 않는 남의 얘기처럼 여겨졌었다. 이곳 서면(西面) 마을들은 춘천 읍내와의 사이에 소양강과 북한강을 끼고 있어서 바깥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었고, 기껏 북쪽 군인들을 봤다는 사람들도 열무나 새끼 다발을 팔러 읍내에 나갔다가 따발총을 메고 누런 군복을 입은 그들이 붉은 깃발을 단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먼발치서 보기는 보았는데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는 정도의 얘기가 고작이었다. 난리가 터졌다는 소문을 들은 지가 석 달은 되었는데도 도대체 어디서 누가 무슨 전쟁을 한다는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해서, 인민군이 탱크를 몰고 낙동강까지 쳐내려 갔다느니, 여러 나라 군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덕적도와 월미도라는 섬을 빼앗고는 인천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느니, 다른 나라 얘기처럼 까마득한 소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말았다. 【전쟁이 남긴 흔적을 구태여 꼽는다면 독가마골 윤주 아범이 얼마 전부터 읍내의 인민군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최근에 국방군이 곧 돌아오리라는 풍문이 나들기 시작하자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마 의용군을 나간 모양이라느니 하는 그 얘기도 전성을 들어넘기다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

④생략.

⑥황노인은 읍내 쪽으로 다시 가늘게 찌푸린 눈을 돌리고는 머리를 설레 설레 흔들었다.

⑦읍내에서 어제부터 벌어진 사태가 어찌면 곧 금산리에서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다. ⑨대대로 이 마을에서 8대나 살아온 황씨 집안의 어른으로서 보다도 예부터 글을 아는 집안이었으므로 강 이쪽 여러 마을에서 크고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두루 넘겨 보고 이끌기도 하고 왜정 시대에는 읍내의 관청을 드나드는 걸음을 도맡아해서 아버지 지가 서면의 면장이라는 소리도 들어왔던 터라 ⑧사실상 금산리 일대의 지도자 노릇을 했던 황노인으로서는 전쟁이 이곳까지 넘어온다면 사뭇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③침을 탁 배알은 황노인은 집안으로 되돌아 들어갔다. ⑤뜨락에서 세수를 하려니까 뒷켄 울타리 쪽에서 수탉이 목청껏 울고 암탉들이 꼬록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아내며 닭장 문을 열어 주니 암탉들이 파드닥 뛰어나와 밥알이 흩어진 수채구멍으로 모여들었고……(12-14)

다음의 사례 역시 원전과 역본의 전개순서와 관련된다. 금산리 마을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 장군봉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그곳에 오르는 아이들과 위치, 주변 풍경, 그리고 전설 등을 소개하는 도입부에 해당한다. 우선 주어진 예문에서 원전의 두 문단이 역본에서는 한 문단으로 합쳐졌고, 전개 순서 역시 다소 변화가 있다. 원전의 산등성이의 소나무와 바늘잎 끝에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을 묘사하는 ⑧번 구문이 역본에서는 ②번 다음으로 앞당겨서 늦여름의 열기를 내뿜는 시간적인 배경과 누렁고 푸른 들판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시공간적인 배경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풍경묘사로 이어졌다. 그리고 ③의 문장은 원전에서는 ④와 문단을 구분하였지만 역본에서는 하나의 문단으로 연결시켜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듯 잔물결이 이는 강’이 곧 ‘소양강’이라 묘사하여 의미의 연속성을 실현하였다. 그 외의 문장은 원전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 예문 3)의 전개순서는 원전: ①→②→③→④→⑤→⑥→⑦→⑧이 ⇒ 역본에서는 ①→②→⑧→③→④→⑤→⑥→⑦로 바뀌었다.

예문3)

ST: ①Laughing and chattering, five boys and a dog strode and hopped along the narrow winding path in the woods on General's Hill. ②In the east the sun was just coming up to bleach the sky white with late summer heat; brilliant sun rays filled the air over the patterned rice paddies and quiet river as the last thin layer of floating fog burned off. ③The glimmering ripples of the river sparkled like powdered glass.

④In the north, the Soyang River skirted the foot of Phoenix Hill and meandered down the sandy plain like a giant turquoise serpent to define the eastern edge of West County. ⑤The North Han River branched out from the main body of the Soyang River a little upstream from the Kumsan ferry and then the two streams joined

again forming a long cucumber-shaped island. ⑥Then the river disappeared into the V-shaped Kangchon valley. ⑦Phoenix Hill looked like a volcano now with dark smoke from the bombed buildings slowly rising high above its peak, but the boys were too engrossed in their expedition to notice anything ⑧ beyond the dew drops shimmering like crystal beads at the tips of the pine needles along the mountain path.(8-9)

TT: ①사내아이 다섯과 개 한 마리가 좁다랗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장군봉(將軍峰)을 올랐다. ②동쪽에 떠오른 지 얼마 안 되었어도 태양은 벌써 막바지 늦여름 열기를 뿜으며 하늘을 새하얗게 태웠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누렁고 푸른 들판에는 마지막 남은 안개 얽은 한 겹이 아직 나지막이 떠서 스러지는 중이었다. ③산등성이 나무들은 길푸르다 못해 거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으며 산길을 따라 비틀거리고 여기저기 서 있는 소나무의 바늘잎 끝에 서는 수정 방울처럼 이슬이 매달려 반짝였다. ④유리가루를 뿌려놓은 듯 부스러진 잔물결이 빛나는 ⑤소양강이 저 위쪽 봉의산 기슭에서 나타나 북한강과 이어졌고, ⑥가운뎃섬[中島]이 갈라붙여 다시 물줄기가 찢어져 나온 북한강은 금산리 마을의 동쪽 언저리를 돌아 휘어져 내려가 서면의 남쪽 끝 삼악산 췌기 모양의 골짜기에서 ⑦소양강과 만나 큰 줄기를 이루어 강촌(江村)으로 흘러갔다. ⑧그리고 북한강과 중도를 지나 소양강 나루 건너편 춘천역 주변에서 시커먼 연기가 공중에 엉겨붙은 듯 천천히 피어 올랐지만, 아이들은 비행기가 불을 쏟아놓아 읍내가 온통 불바다가 되었어도 지금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16-17)

2.3.2 내용적인 측면

2.3.2.1 명시화 및 함축화

형식적인 측면에 이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원전과 역본의 번역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 4)는 ‘명시화’(explicitation) 및 ‘함축화’(implicitation)의 번역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사례이다. ‘명시화’ 번역전략은 번역보편소에 속하는 특성으로 “원전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게 번역본의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원전에 없거나 원전의 문맥에 감춰진 의미를 번역본의 표면에 덧붙여서 드러내는 표현 양상을 가리킨다.”(김정우 2009: 79) ‘명시화’ 번역전략의 상반된 개념인 ‘함축화’ 번역전략은 “원전에 명시된 정보를 번역본에서 함축 및 요약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기법”(전현주 2009: 169)으로 ‘명시화’ 및 ‘함축화’ 번역전략은 모두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의 잉여 및 결핍을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역자가 적용하는 번역전략이다.”(전현주 2009: 169) 다음의 예문을 보면 왜란과 호란에 대한 기술이 원전에서는 명시적으로, 번역본에서는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원전은 왜란과 호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는 대상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명시화 서술전략을 적용 한 반면 번역본은 국내의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기 보다는 함축적으로 서술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저자 겸 역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예문4)

ST : When the Japanese had invaded, tens of generations ago, the Southern Pirates paid no attention to this remote village; it had no riches to loot. The Mongol horde plundered the country several decades later, but the Northern Barbarians did not notice this secluded region. Five centuries later, Japan colonized the country for thirty-six long years, but no Japanese, not even a single soldier or policeman, had ever shown up at Kumsan village. During this period of colonial rule, collection of tax and “war-supporting materials” such as spoons and washbasins and all sorts of metal objects was undertaken in the West County by Korean petty officials dispatched from town.(5-6)

TT : 왜란 호란을 다 겪어도 별일이 없었던 곳이 바로 금산리였다. 몽고에서 내려왔건, 일본에서 건너왔건, 그 어느 누구도 이곳은 건너다 보지도 않았고, 왜정 시대에도 가끔 칼 찬 순사가 황씨댁이나 독가마골 솥집을 다녀가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모자에 제복을 입고 나룻배 시켜 두 강을 건너 오던 사람이라고 는 우체부가 고작이었다.(14)

가령, 원전에서는 왜란을 ‘몇 백 년 전의 일본의 침략’(the Japanese had invaded, tens of generations ago)으로, 호란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그보다 몇 십 년 후의 몽고의 침략’(The Mongol horde plundered the country several decades later)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왜정시대’는 그로부터 5백년 후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배(five centuries later, Japan colonized the country for thirty-six long years)로 연대기적인 순서로 기술하였으며,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왜놈을 ‘the Southern Pirates’로, ‘오랑캐’를 ‘horde’와 ‘the Northern Barbarians’로, 식민지시대에 자행된 일본의 전락물자 수탈을 핵심적으로 명시한 대목 ‘During this period of colonial rule, collection of tax and “war-supporting materials” such as spoons and washbasins and all sorts of metal objects was undertaken in the West County by Korean petty officials’를 제시하여 ‘식민지 시대에 숟가락과 세숫대야를 비롯하여 온갖 쇠붙이가 될 만한 것들은 죄다 세금징수와 전쟁물자 조달의 명목으로 수탈해 갔다’는 부연설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배경지식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역문에서는 왜란과 호란 그리고 왜정시대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도 독자들의 이해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간략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함축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명시화 번역 전략은 두 언어 공동체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차이에서 비롯되며, 명시화의 유형⁸⁾ 중 ‘화용적(pragmatic) 명시화’ 번역전략에 속한다.”(Klaudy 2001: 82-3; 김순영 2005: 145-6) 하지만 명시화 전략과 함축화 전략은 원전과 번역본의 해당구문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서술 혹은 번역전략이므로, 비록 유형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례문에서 제시한 ‘함축화’ 전략 역시 ‘화용적’ 함축화 번역전략에 속한다 할 수 있다.

2.3.2.2 명세화 및 단순화

‘명세화’(specification, 明細化)는 ‘분명하고 자세함,’ ‘상술’(詳述), ‘열거’(列舉)를 뜻하며, ‘단순화’(simplification, 單純化)는 ‘절차나 과정을 줄여 번거로움을 최소화’ 한다는 뜻이다. ‘명세화’와 ‘단순화’ 역시 위의 ‘명시화’와 ‘함축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술 기법이지만, 전자는 ‘절차나 과정’과 관련되는 반면 후자는 ‘정보의 가감을 통한 부연설명의 정도’를 언급하므로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하여 ‘명세화’ 및 ‘단순화’의 서술 기법이 구현된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8) 명시화의 유형: 의무적(obligatory) 명시화, 선택적(optional) 명시화, 화용적(pragmatic 명시화), 번역 고유(translation-inherent)의 명시화 등 네 가지가 있다. (Klaudy 2001: 82-3)

예문5)

ST: Old Hwang chased the last chicken on the perch out of the pen and collected the eggs from the nests. He took the wicker basket hanging on the hook nailed into the clay wall and put the eggs, one by one, carefully into it. He brought the heavy basket to the kitchen, where his daughter-in-law, sitting on the rolled rush mattress, was burning pine branches and dry oak leaves in the oven hole under the cauldron to cook the rice, cradling her eleven-month-son on her lap with her free hand. As white steam began to hiss out through the chink under the lid of the cauldron, she scattered the burning branches in the oven and covered with the fire with ash. She removed the heavy wooden lid to see how well the rice was done. The rice was cooked just right and she replaced the lid; she had to wait half an hour longer for the compressed steam inside the cauldron to turn the grains palatably gelatinous. In the meantime, she had to prepare several side dishes. For breakfast today, she planned to serve parsley pickles, soybean paste soup and sweet potato cubes in sauce.

Old Hwang stopped by the kitchen door which was smudged by old smoke stains. He cleared his throat so his daughter-in-law would be aware of his approach. (7)

TT: 노인은 햇대에 남은 닭 한 마리를 마당으로 몰아낸 다음 달걀이 무거워 축 늘어진 망태기를 들고 닭장에서 나왔다. 달걀을 건네주려 부엌으로 갔더니 머느리는 명석처럼 둘둘 말아놓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한 손으로 무릎 위에 앉힌 돌박이 아들을 흔들며 아궁이에 짚을 뺏다. 부지깥이로 쭈시면 성글성글한 잿속에서 은은한 불기운이 번졌다. 황노인은 기둥이 시커멓게 연기에 그들은 부엌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여 나 여기 있다고 알린 다음에 망태기를 내밀었다.(15-6)

위의 예문은 문화적인 요소와 관련하여, 아궁이에 불을 지피 가마솥에 밥을 짓는 과정과 모습을 묘사한 밑줄 친 부분은 작가 겸 역자가 원천문화권과 목표 문화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애쓴 흔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저자 겸 역자는 영어권 독자들은 ‘아궁이에 짚을 때고, 부지깥이로 쭈셔 잿속의 은은한

불기운을 번지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 따라서 밥 짓는 과정을 원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고도 자세히 묘사하였다. 원문의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밥을 지으려 가마솥 아래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가마솥 뚜껑의 틈새로 김이 뿜어져 나오면 부지깽이로 불을 쭈셔 불기운을 낮춘다. 그런 다음 가마솥 뚜껑을 열고 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 다시 뚜껑을 닫고서 30분 정도 뜸이 들기를 기다린다. 그 사이에 반찬을 준비한다.' 이렇게 원문에서 상술한 '밥 짓는 과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번역문에서는 모두 생략하고 '아궁이에 짚을 땀다 ……'는 단순한 묘사로도 충분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간략하게 전달하였다.

2.4 번역의 품질과 역자의 번역 자율성

일반적으로 번역의 품질을 논의할 때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전의 순서를 뒤바꾸거나 내용의 생략, 첨가 혹은 삭제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원전에 대한 충실성 부족, 역자의 번역능력 부족 등을 운운하며 해당 번역작품에 대한 혹독한 질타가 가해진다. 그러나 앞서 분석대상 작품의 원전과 번역본을 비교해 본 결과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생략 및 첨가 그리고 문장 혹은 문단의 순서가 재배치되는 현상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명시화' 및 '함축화' 그리고 '명세화' 및 '단순화'의 현상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해당 저자 겸 역자의 번역본은 번역의 정전(canon)이 되어야 할 원전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역자의 자율성이 무제한적으로 발휘된 결과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정된 몇 군데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번역가 안정효는 원전에 대한 충실성이 결여된 역자인가? 그는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역자인가? 그리고 그는 번역 자질이 부족한 역자인가? 사실 사무엘 베케트 역시 '자가번역'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원전의 최종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초고를 보며 번역(Fitch 1988: 70)하여 원전과 번역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에

서 논문의 도입부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저자 겸 역자의 번역 방식 및 전략과 관련하여 ‘타자번역’의 평가와 비평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통 번역은 원전을 따르지만, 작품의 이해력에 있어서 저자 겸 역자를 능가하는 사람은 없다.”(Cohn 1962: 616)는 견해에서 일차적으로 ‘자가번역’과 ‘타자번역’은 평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포포비치(Povovič)는 ‘자가번역’을 ‘원저자가 행한 번역’(authorized translation)(Shuttleworth 13)이라 하였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authority’에는 ‘자유재량(권)’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가번역’은 ‘원저자의 행한 번역’으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번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번역’을 행하는 역자에 비하여 작품의 이해력이 앞서며, 상대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저자 겸 역자에게 번역자율권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자 겸 역자가 원전의 구속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⁹⁾가 역자에게 작가의 원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으로 저자와 역자, 원전과 번역본의 불평등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익히 잘 알고 있다. 만일 원전의 저자들이 생존해 있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번역본을 검토한 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저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그들은 일제히 번역본에 대한 역자의 해석권인 재량권을 직접 통제하려 들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자들이 제 2의, 제 3의 밀란 쿤데라를 자처할 것이다. 사실 번역과정에서 역자들은 이와 같은 종류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저자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원전의 구속력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원전에 충실성을 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점에서 저자 겸 역자는 근본적으로 저자의 존재감이 지배하는 저자의 권위(authorship)에 억눌려 역자의 권위

9) 체코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그는 자신의 소설 『농담』(The Joke) (1967)의 영어 번역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전의 장(chapter)이 편집, 삭제 혹은 재배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역자와 해당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하였다. 1982년에 출간된 두 번째 번역본에 대해서는 이는 ‘나의 작품이 아닌’(not my text) ‘번안’(translation-adaptation)에 해당하므로 ‘용인할 수 없다’(unacceptable)고 선언하였다.”(Venuti 1998: 5)

(translatorship)가 제한되거나 통제받지 않고 번역자유권을 과감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번역의 평가기준을 수립할 때에도 원전에 대한 충실성이나 저자의 의도를 구현한 정도를 판단하는 ‘타자번역’에 적용하는 잣대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과 번역본을 각각의 개별적인 텍스트로 인정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문화소(文化素), 고유명사, 관용어, 역사적인 사실 등과 관련된 원천문화권과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는 저술 및 번역의 특성과 전략, 저술과 번역의 경계, 이중어 글쓰기의 양상 등에 관하여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자가번역’과 ‘타자번역’의 특성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가번역’과 ‘타자번역’의 특성1 (문학번역에 국한함)

특성	종류	자가번역	타자번역
원전의 구속력	형식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높음
	내용	높음	매우 높음
저자의 의도 구현 정도		매우 높음	높음 혹은 상대적으로 낮음
역자의 번역 자유권		무제한	매우 혹은 상대적으로 낮음
저자와 역자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저자 = 역자)	종속적인 관계 (저자 > 역자)
원전과 역본의 관계		상호보완적인 관계(원전 ↔ 역본) 원전과 역본을 각각 개별 텍스트로 인정	종속적인 관계 (원전 > 역본)

표의 마지막 항목에서 ‘자가번역’을 원전과 역본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원전과 역본을 각각의 개별 텍스트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루이스(Pierre Louÿs)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루이스는 “번역을 원작(authorship)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원작 역시 자기 발생적(self-originating)이 아니라 파생적인(derivative) 글쓰기이며, 독자적(sui generis)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Louÿs 1990: 317)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므로 저자 겸 역자는 이중어 글쓰기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원작과 번역본의 영역(領域)을 무의식적으로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원작과 번역

본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을 갖게 된다.

2.5 이중어 글쓰기와 다시쓰기

앞의 2.3에서 ‘타자번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잣대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텍스트인 ‘자가번역’ 작품의 원전과 역본의 형식 및 내용을 비교한 결과 문장이나 문단의 순서 혹은 내용을 기술하는 순서는 물론 내용의 가감 등 다양한 서술 양식이 작품 전반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번역 결과물은 현재의 번역이론과 번역품질평가 및 비평의 잣대를 적용하면, 내용은 고사하고 우선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학번역의 평가기준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또한 원작의 문체나 번역(미국 현지에서는 영어판을 번역본으로 간주했기 때문)과 관련해서도 출간 당시 미국 현지의 호평 일색이었던 이면에는 번역의 품질 혹은 영어 글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안정효의 글은 훌륭하지만 때로는 빈틈이 보이거나 무미건조하게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번역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번역상의 문제는 없지만 산문의 생동감이 모자라는 것은 문체상의 면모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간에 숨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대목은 발견되지 않는다”(Brian Alexander)¹⁰⁾고 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안정효의 문체는 담백하고, 구차한 얘기를 늘어놓지 않는다. …… 그는 자신이 쓴 한국어에서부터 스스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미국어의 용법상에 있어서 그가 동원하는 변형들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Jaff Danjiger)¹¹⁾ 이 두 가지 사례에서 특히 ‘산문의 생동감이 모자란다’거나 ‘숨을 죽이는 대목은 없다’, 그리고 ‘그가 동원하는 변형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는 등의 평가는 안정효의 이중어 글쓰기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지적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현지의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가 겸 역자의 ‘자가번역’ 작품의 경우라도 “어떤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모든 번역은 내재적인 결함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번역은 ‘비번

10) 「샌디에이고 트리뷴」(San Diego Tribune) January 19, 1990(안정효 1990: Silver Stallion의 출간 후 반응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의 스크랩 내용에 대한 작가의 번역문 발췌).

11)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April 5, 1990(위와 동일).

역적인 측면'을 지닌다'(Berman 1990: 5)는 베르망의 지적이 예외 없이 적용되기도 한다.

안정효는 모든 작품을 이중 언어로 집필하지는 않았으나, 본고의 분석대상 도서의 경우, 두 언어로 쓴 작품(여기서는 원전과 역본을 구분하지 않음)을 모두 살펴보아야 작품의 전체적인 명확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가는 애초에 작품을 집필할 때 굳이 원전과 번역본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을 원전으로 간주하고 작품을 집필한 흔적을 군데군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작가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식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우리말 작품과 영어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원본이자 번역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글쓰기는 번역이다”(Chesterman 1997: 13)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 또한 “초판은 앞으로 나올 판본의 ‘리허설’에 지나지 않으며, 재판은 이전 출판본의 ‘리허설’에 지나지 않으며, 재판은 이전 출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Fitch 1988: 157)는 피치(Fitch)의 주장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적인 관점에서 안정효의 번역은 원전과 저자에 대한 충실성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으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역어권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충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저자 겸 역자는 저자의 심중을 최대한 헤아려 번역에 임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안정효만큼 자신의 작품을 거시적으로 손질한 번역가는 없을 터이니 말이다.

한마디로 안정효는 저자 겸 역자로서 번역 역시 글쓰기의 범주에 속하므로, 그는 “글쓰기를 문화적인 소재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보고 작가가 이것을 취사 선택하여 나름대로 우선 기준에 따라 배열하고 특수한 가치에 따라 고쳐 쓰는 (다듬어 쓰는) 작업에 불과하다”(Venuti 43)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가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완전히 해체하여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다시쓰기’(rewriting)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자가번역’ 작품에 나타나는 무한대의 번역자율성은 번역의 관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시쓰기와 이중어 글쓰기의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언어로 쓰인 원전과 역본을 상호보완적이며 독립적인 텍스트로 함께 고려해야 해당 작품의 작품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자가번역’을 평가하는 확장된 개념과 ‘타자번역’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가번역’과 ‘타자번역’의 특성 2 (문학번역 장르에 한정)

특성 \ 종류	자가번역	타자번역
글쓰기 방식	이중어 글쓰기	단일어 글쓰기
원작과의 관계	파생적(derivative)이지만 보다(more) 독창적임: 원작과 번역본은 상호보완적이며 개별적인 텍스트임	파생적이며 덜(less) 독창적임: 번역본은 원작에 의존적임
저작(번역) 시기	원작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 혹은 동시에 가능	원전보다 앞설 수 없다
출간시기	원전보다 앞설 수 있다	원전 출간 이후에 번역이 이루어지므로, 원전보다 앞설 수 없다
재번역(retranslation)	가능	가능
다시쓰기(rewriting)와 관련성	상관성 높음(원전을 그대로 재현하기 보다는 역자의 해석이 가미될 확률이 높으며 창의성이 발현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상관성 낮음

3.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안정효의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자가번역’ 작품의 특성과 이중어 글쓰기 방식, 다시쓰기와 관련성, 서술 및 번역의 관점 및 전략, 그리고 저자 겸 역자의 자율권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문학번역에 장르를 국한하여, 한 편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그쳤지만, 안정효의 ‘자가번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번역과 창작의 영역에 동시에 접근한 원전에 기초한 재창조적인 새로운 글쓰기 작업에 해당한다. 또한 안정효는 번역이 아닌 창작 혹은 글쓰기의 동기를 갖고 두 언어로 동시에 집필하는 이중어 글쓰기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마(銀馬)는 오지 않는다』는 두 판본을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개별적인 텍스트로 인정하고 함께 참고하고 분석해야 비로소 작품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가번역’은 다시쓰기와 이중어 글쓰기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므로 번역

평가 및 비평의 기준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가번역’과 이중어 글쓰기 분야를 거의 독보적으로 개척한 안정효의 번역전략과 작품성 그리고 그의 이중언어 글쓰기 규범 등에 관하여 기 출판된 『하얀전쟁』(White Badge)과 출판예정 도서 등 작가가 직접 번역한 ‘자가번역’ 작품 전체를 대상으로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역이 확장된 글쓰기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향후의 전망 등에 관하여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자가번역’과 다시쓰기, 그리고 이중어 글쓰기 현상의 광범위한 사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 겸 역자들이 ‘자가번역’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독자를 고려하는 문학작품의 서술 규범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여 이중어 글쓰기를 하는지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도서

ST: Ahn Junghyo (1990) *Silver Sallion : a Novel of Korea*, New York : Soho.
 TT: 안정효 (1990) 『銀馬는 오지 않는다』, 서울: 고려원.

참고문헌

- 김순영 (2005) 「Evidence of Explication in Texts Translated from English into Korean: A Corpus-based Pilot Study」, 『번역학연구』 제6권1호: 143-66, 한국번역학회.
- 김윤식 (2005) 『김윤식선집7: 문학사와 비평』: 251-369, 서울: 솔출판사.
- 김정우 (2009) 「한국어 번역문의 구조적 명시화-특정 보어 구문의 열세적 분포와 관련하여」, 『번역학연구』 제10권3호: 77-97, 한국번역학회.
- 박혜주 외 저 (2007) 『문학번역평가 시스템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 안정효 (1986) 『갈쌈』, 서울: 책세상.
- 안정효 (1997) 『실종 상·중·하』, 서울: 정민미디어.
- 안정효 (2000a)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영역편』, 서울: 현암사.
- 안정효 (2000b) 『번역의 공격과 수비』, 서울: 현암사.

- 이유식 (2003) 「해외 진출을 위한 우리문학의 모형」, 『반세기 한국문학의 조망』: 11-19, 서울: 푸른사상.
- 이희재 (2001) 『번역사산책』, 서울: 궁리.
- 전현주 (2008) 『번역비평의 패러다임』, 파주: 한국출판정보.
- 전현주 (2009) 「고(저)감도 문화 이론과 번역전략의 상관성」,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163-83,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Baker, Mona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 17-20,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2009)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257-260,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of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Cohen, J. M. (1962) *English Translators and Translations*, London: Longmans, Green.
- Fitch, Brian T. (1988) *Beckett and Babel: An Investigation into the Status of the Bilingual Work*, Toronto, Buffalo and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rutman, Rainier (2001) 'Auto Translation' in Baker, Mona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7-20, London: Routledge.
- Inchan, Pak (2009) 'The Pitfalls of Literary Globalization: Korea's Self Othering in Ahn Junghyo's *Silver Stallion: A Novel of Korea*,' 『새한영 어영문학』 제51-1호: 213-31.
- Israël, Fortunato (1995) "Le traitement de la forme en traduction", in Iberia, nouvelle série 5, *Le linguiste et les traductions*: 115-124.
- Klaudy, Kinga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 80-4, London & New York: Routledge.
- Louÿs, Pierre (1990) *Les Chansons de Bilitis*, ed. J.-P. Goujon, Paris: Gallimard.
- Levevere, André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rame, London: Routledge.

Perry, Menakhem (1981) 'Thematic and Structural Shifts in Autotranslations by Bilingual Hebrew-Yiddish Writers: the Case of Mendele Mokher Sforim', *Poetics Today* 2 (4): 181-92.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 Manchester: St. Jerome Pub.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200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Manchester: St. Jerome Pub.

Venuti, Lawrence (1998)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Routledge.

[Abstract]

Criticism of Self-translation

— Focusing on Ahn, Junghyo's *Silver Stallion: A Novel of Korea* —

Chun, Hyunju
(Hanbuk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an investigation into the substances of what self-translation is and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 theories and criterion of other-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nd criticism can be literally applied to the case of self-transl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author-translator, Ahn, Junghyo's *Silver Stallion: A Novel of Korea*, some striking translation strategies and aspects are revealed in whole texts like ellipses, deletion, addition, rearrangement of sentences and paragraphs, explicitation, implicitation, specification, simplification and others. These features couple directly with the unfaithfulness of source text and author, and with the unqualified translator in other-translation. But the unlimited autonomy of author-translators' has to be acknowledged in terms of its own innateness of writing and self-translation.

It has the reasons why self-transla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1)it is 'bilingual writing' which approaches in the area of translation and creative writing simultaneously; 2)it has 'the stronger motivation of writing' than that of translation; 3)both source and target texts of author-translator's should be accepted and consulted as independent and complement ones to apprehend them properly; and 4)'a new writing style' including the comprehensive concepts of rewriting and bilingual writing. Therefore it is required to look at the features of self-translation from bilingual writing or rewriting perspectives. And also the establishment of theories and criterion of self-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nd criticism are required and applied.

▶ Key Words: self-translation, auto-translation, bilingual writing, rewriting,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TQA), translation criticism

전현주

한북대학교 영어학과 전임강사

transju@hanbuk.ac.kr

관심분야: 번역비평 및 평가, 번역규범, 로컬라이제이션 번역, 번역과 문화, 이
중어 글쓰기

논문투고일: 2010년 8월 03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4일